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2022 | 겨울 vol.59

창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적 실증 원톱 지원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는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021년 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한민국 청정바다의 수도 건강의 섬 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전국단위의 해조류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인 전라남도 완도에서 해양생물장원 표준화, 기능성 평가를 통해 유효성 소재를 발굴하고 제품 개발 및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실증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하며 산학연관의 역량이 결집 되어있어 협동 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및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소재 개발

- 해조류 종별 수집 및 분류
- 종 판별을 위한 특이 프라이머 서열
- 원료의 유해물질, 중금속 합량분석
- 추출 용매별 성분 분석

기능·유효성 평가

- In vitro, In VIVO 유효성 평가 기반 구축
-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장비 대여
- 소재의 다양한 기능 평가 분석

사업화 지원

- 기업 정밀진단(기술,사업화,경영, 재무역량등)
- 국제과제 수행을 위한 컨설팅, 매칭 방안 수립
- 사업화를위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지원

장비구축

- 실험 및 측정 전문장비 대여
- 공유실험실 구축

공동연구개발

- 산, 학, 연 공동연구수행
- 해양바이오 표준화빅데이터 구축
- 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자문

기술개발지원

- 신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 기능성, 안정성 규명
- 기술이전 및 컨설팅지원

교육훈련

- 조선대, 완도 수산고 등 유관학과 현장실습
- 장비 활용 전문인력 육성

컨벤션기능

-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워크숍, 학술대회, 회의등
- 인적네트 구성
- 산, 학연, 어민 상호교류



진시영 '빛의 분수대' 5·18민주광장 분수대, 매주 금·토 저녁 8시 15분
1980년 5월,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광주 시민들이 들었던 햇불은 2016년 11월,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촛불집회에서 다시금 타올랐다. 이처럼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찬란한 연대를 상징하는 '햇불'을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불'로 재해석하여 '자유·평화·인권'의 정신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하였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조성 예술감독(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2012) 초대 감독 역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기념 공연(2019) 예술감독,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2019) 예술감독.

2		'창'을 열며 '참 좋은 말'을 씹시다	김정희
4	특집 기획	2022 광주 문화현안 핫이슈 문화전당 증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의미와 과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 “문화로 먹고 살기가 가능하려면?” 광주 예술계 권리 침해 이슈	강신겸 임인자 정두용 장도국
16	문화 + 人	핫피플 인터뷰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허공을 향한 ‘문화’ 슬로건보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도시로”	김정희
21		문화인 인터뷰 이승규 작곡가 예술 위에 물음표를 얹는 잡,곡,가.	이지호
26		청년 문화인 세상에 없던 깡통첼로, 농약같은 연주라니	김가영
28		기획연재_ 우리 신화의 밑바탕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 - 마고여신 4	김상윤
31	문화 공감	리뷰 & 프리뷰 두 도시의 경계를 넘어	이 철
34		진단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 지정 8년째, 손에 쥐어진 게 없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시민단체와의 약속은?	박호재 윤만식
38		문화톡 문화와 소통	이하린
40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김옥열
42		재단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참 좋은 말’을 씹시다

김정희 재단 편집위원,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가끔은 신문의 기사와 우연히 돌린 채널의 텔레비전 뉴스가 잘못 보도 될 수도 있다는 것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이 땅의 청춘들이 도와 줄 어른들을 애타게 부르다 숨이 막혀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는 뉴스, 너무나 충격적인 그 날의 ‘참사’는 뒷수습하는 이들의 끝없는 설전과 책임 전가로 슬픔마저 슬프지 않았고 더욱 깊어지는 나라를 보았다.

그렇게 생명을 잃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누군가의 사랑 하는 아들, 딸이었을 젊음을 생각한다. 무지개 갈을 줄 알았던 미래를 꿈꾸던 소년과 소녀가 자라 청년이 되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경 문제, 취업, 등록금, 치열한 경쟁으로 벼랑에 서게 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도전 보다 포기를 먼저 배워야했던 시간들…… 날마다 욕망과 가능성이 뒤섞여 현실이라는 거친 바다를 향해하던 그들에게 가면 분장의 ‘할로윈 축제’는 어떤 의미였을까?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내세로 간다고 믿었다. 이후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자들의 날(All Hallows Day)’로 정했고 켈트족의 풍속이 전야제(Hallows’ eve)를 통해 헬러윈데이로 정착했다고 한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어쩌면 성공을 향한 무법질

주를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모순을 가면 뒤에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느 영화감독의 말처럼 ‘도착해보니 지옥이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추위를 했노라’ 그런 느낌으로 사회의 모순을 고뇌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무책임한 어른들의 잘못이다. 관계자인 그들이 처음부터 매뉴얼을 지키고 현장에서 질서를 잡아 주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젊음이 허망하게 죽음으로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 날의 기억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서 아픈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는 ‘서로 서로’ 다독임과 치유를 오래 나누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참사 이후 책임을 나누어야 할 이들의 ‘말’은 사과이전에 더욱 거칠어지고 타인을 조롱하며 실패를 부추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되어 날고 있다,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과 엉뚱한 추측으로 사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멀어지게 한다. 이것 또한 누구를 위한 일인지 분명치 않다. 과학적으로 말은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킨다. 그래서 말하는 직업이 노동만 하는 직업보다 중노동이라고 한다. 종교에도 묵언이라는 것이 있고 면벽이라는 것도 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산란해진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거친 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기회를 먼저 가져보아야 할 시점이다. ♪

특집기획

2022 광주 문화현안 핫 이슈

2022년은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으로 지역 문화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특집기획은 '2022 광주 문화현안 핫 이슈'라는 주제로 문화예술분야 각 현안을 들여다보고 내년을 조망해보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방역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문화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2023년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광주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편집자 주

- 문화전당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의미와 과제
강신겸_ 전남대학교 교수
-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
임인자_ 소년외서 대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민관협치 TF위원
- “문화로 먹고 살기가 가능하려면?”
정두용_ (사)청년문화허브 이사장
- 광주 예술계 권리 침해 이슈
장도국_ 배우

문화전당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의미와 과제

1. 전당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비전

지난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지난해까지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무려 6년 3개월 동안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는 등 전당장 공백이 장기화되었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조직이 나뉘진 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류하는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통합되었고, 이어 2월 이강현 초대 전당장이 취임함으로써 전당 운영체제가 정비되었다. 전당장 취임 이후 전당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문화전당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통합전당 출범이후 추진할 문화전당의 비전과 핵심 가치, 전략 체계를 제시했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문화전당 재도약을 위해 직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새롭게 조직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광주는 2004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그 핵심 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왔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정체성에 기초한 역사적·정신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건

립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창조와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문화발전소이자 누구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개관 6년이 넘도록 전당장조차 선임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5·18이라는 가치를 통해 도시의 공간과 시민의 삶이 문화예술적으로 재구축된 도시로 변화되고 있는지(김기곤, 2018),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강신겸, 2015),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문화전당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이원화된 조직통합 이후 기관발전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문화전당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담대한 목표로 나아가는데 문화전당이 당초 기대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문화전당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계획내용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1월 통합전당 출범을 계기

로 전당의 비전과 핵심 가치, 전략체계를 제시하며, 오는 2025년 개관 10주년을 대비하여 기관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운영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전당이 오는 2027년까지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대된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플랫폼 기능을 활용한 참여와 상호작용, 온·오프라인 병행 구도 활성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 문화 서비스 등 복합문화예술시설 운영의 새로운 틀을 모색했다. 또한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도 연도별 중장기 핵심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아시아 문명사를 3단계로 나누고 23~24년 아시아의 도시문화, 25~26년 도시민의 생활양식, 27~28년엔 아시아의 예술을 주제로 아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줄 예정이다.

발전계획은 문화·예술·기술의 교류와 융·복합을 통한 아시아 문화가치 확산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세계 수준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선도 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전당은 4대 전략 목표와 5대 핵심 추진 방향 및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4대 추진 전략 목표는 ▲지역-국가-세계 단위 관계망 기반 강화 ▲아시아연구 및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아시아 가치의 사회적인식 및 이해 제고 ▲복합문화 예술기관 조직·서비스 역량 강화 등이다. 추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문화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문화교류 플랫폼 기능 수행을 위한 국내외 관계망을 구축한다. 아시아 예술공동체 확대와 활성화와 문화전당에 특화된 공적개발원조(ODA)를 개발, 운영한다.

둘째, 아시아 문화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보급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전

환, 그 가치를 보존하고 민간 창의산업 분야 등에서 콘텐츠 개발의 원천 자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예술과 기술, 인문학, 사회 등 다학제 간 연구 및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을 전개하는 프로젝트 랩(Lab) 기능을 강화한다. 창·제작과 전시를 위한 기술과 인문 부문 조사, 국내외 창·제작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 여기에 문화전당의 창·제작과 전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랩 기능을 보다 활성화한다.

넷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도화한다. 특히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관객 친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고객 중심 관람 환경 조성 및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경영 관련 추진 전략과 체계도 마련해 기관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전당과 지역사회간 관계망을 구축해 소통을 정례화한다. 5대 문화권 특성화, 권역별 핵심사업,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과 연계한 협업을 광주시와 추진한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전당 창작공간 개방·대여·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3. 향후 과제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1월 통합전당 출범을 계기로 기관의 앞날과 핵심 가치, 전략체계, 2025년 개관 10주년 대비 기관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운영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활용 핵심 사업방향과 문화전당 고유의 창·제작 선순환 구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중장기발전계획전담팀(TF)을 구성, 총 40여 회에 걸친 내부 회의를 진행

하며 마련한 중장기발전계획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몇 가지 보완할 점도 없지 않다.

첫째,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고 신규 직원들이 합류한 만큼 중장기 조직·인력 운용 방향, 기관 내부 역량 강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규모가 확대되고 공적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화를 늘 경계하며 창조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써 창의적이고 환경변화에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당이 단순한 전시·공연공간을 넘어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와 기술을 문화산업으로 연계·발전시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유통과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문화기업을 육성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함께 전당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주시 연차별실시계획 및 문화정책 등 주요 정책과의 연계, 문화전당의 역할을 고려한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의 연구와 콘텐츠 창작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넷째,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쉬운 친숙한 공간보다는 근엄하고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고객 친화 플랫폼으로 변화를 지속해야 한다. 문화전당 공간 자체가 콘텐츠인 만큼 앞으로는 전당의 숨은 명소와 공간을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광주시가 문화예술과 관광을 융복합한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술관광 거점으로써 문화전당의 역할이 요구된다.

문화전당은 당초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을

비전으로 아시아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전 세계로 공급하는 문화발전소를 핵심 개념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문화전당 재도약을 위해 새롭게 조직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문화전당과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동시대 아시아 문화예술 선도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신겸(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광마케팅전략 제안. 지역개발연구 47(1), 1~26쪽.
- 강신겸(20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17~128쪽.
-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중장기발전계획연구(2023~2027).
- 김기곤(20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서 있는 자리 혹은 서 있어야 할 자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제10차 이슈포럼 발표집, 33~36쪽.
- 문화체육관광부(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년).

강신겸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

대한민국 헌법 22조에는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故 최고은 작가가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쪽지를 남기고 병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서야 예술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법적 체계로 ‘예술인 복지법’이 논의되었고, 그해 11월 17일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가 예술에 대한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인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가치가 최초로 발현된 법률이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에도 한계가 있었다. 첫 번째로 예술인 복지법에는 공연 방해 등 검열 및 블랙리스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신고의 해결 및 시정 주체가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검열 및 블랙리스트 문제와 같이 국가가 그 범죄의 주체일 때,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인의 취약한 지위 문제였다. 2018년 미투운동이후 밝혀진 문제로, 예술인은 성희롱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술인의 74%는 프리랜서로 활동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이 부재했다. 즉 성희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 따라 예술인들은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을 벌였고, 2019년 4월 19일 최초로 발의되었던 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가 들어선 이후 2021년 9월 24일에야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광주의 예술가들의 노력도 보태졌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있었던 부조리 사태를 고발하고 나선 예술인들의 노력이 그것이다. 광주시립극단에서 있었던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라는 작품에 오디션을 통해 참여했던 배우들과 조연출이 광주시립극단 연출 및 무대감독이 저지른 계약 지연, 불공정계약 종용, 갑질, 연습 중 안전사고, 성희롱 등 잘못된 일 앞에 문제제기 하였다. 그리고 광주의 예술인 및 시민사회가 응답하고, 연대하여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등이 발족되었다. 이들은 ‘작품별 단원제’라는 기형적 형태의 고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집담회

용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광주전남고용노동청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도 하였고, 광주옴브즈맨으로부터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광주시립극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광주시립극단에서 연출, 무대감독 등 정규직 상임 단원들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힘의 위계가 해결되지 못했고, 작품별 단원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 구조 형태도 바뀌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마저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은 어떠한 것일까.

이러한 상황 속에 대책위의 주도로 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1년 7월 8일에는 광주광역시 시의회 주최로 <제100차 정책(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며, 제6조에는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광주에서 예술인들이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심지어 설치되지도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전 이사장 등이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TF 설치를 제안하였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TF 설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문제 및 광주시립예술회관장의 공무원 임명 등의 문제로 2022년 10월 광주 민예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 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당시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TF 설치를 다시한번 요청하였고,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실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논의가 진전되었다.

드디어 2022년 1월 18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민관협치 TF>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김나운 광주광역시 시의원, 고선주 남도일보 문화부장, 김태중 변호사(노무사), 배철진 광산구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이사, 이현미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 임인자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대책위 간사, 장도국 연극인, 최영화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장, 김요성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현재는 정종임 정책관), 하경완 광주문화예술회관장,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현재는 정혜영 예술인보듬·소통센터 본부장) 총 11명이 참여하였다. 첫 회의에는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달라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법>이 제정된 취지와 배경 등이 논의되었고, 위원장 선임(위원장 최영화, 부위원장 임인자) 및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의 차이는 무엇인지(예술 표현의 자유,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 뿐만 아니라, 예비 예술인의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광주 예술인의 권리 침해 구제 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예술인 권익지원센터 설치,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2022년 11월 15일(화)까지 총 8차례의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민관협치 TF가 열렸다.

이러한 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TF 위원으로 참여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직접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25일에는 <광주광역시 주최 및 광주문화재단과 민관협치 TF> 공동 주관으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제정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핵심 의제인 ‘예술 표현의 자유, 성평등한 창작환경, 안전한 창작환경, 예술인의 노동권리, 예비예술인’이라는 5개의 의제를 바탕으로, 창작 현장에서 느끼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존중,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 보장, 성평등한 예술 창작 환경 조성, 예비 예술인의 권리 등을 중심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예술인 권익지원센

터 설치,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3년 2월에는 조례안 발의, 2023년 3~4월 경에는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는 광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의 마련 이전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 성희롱 성폭력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때문에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장치로서,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유령’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제도적 권리보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또한 그동안 예술인 권리 보장 역시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점, 광주시립극단에서 일어난 부조리 사태,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 등을 돌이켜 보았을 때, 광주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걸음인 것이다.

향후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열릴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공청회에도 많은 예술인들께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광주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존중이 아닌 성희롱, 성폭력, 갑질 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가 그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기를 있기를 희망한다. ♪



임인자 소년외서 대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민관협치 TF위원

“문화로 먹고 살기가 가능하려면?”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올해,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문화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문화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의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 모색하려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도 숙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내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문화허브는 처음 설립된 2013년부터 ‘문화기획자 인큐베이터’를 주요 정체성 중 하나로 설정하고 청년문화기획학교를 운영해 왔다. 작년부터는 시의 지원을 받아 <호랭이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과정은 맛보기 수준의 아카데미나 진로탐색 과정이 아니라 실제 문화기획 일을 업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 그대로 전문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수료 후에는 참여자들이 실제로 취업, 창업, 프로젝트 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스트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결국 ‘문화로 먹고 살기’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 노오력만으로 가능할까?

청년문화허브를 처음 설립했던 초창기 몇 년,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위 잘 나간다는 문화예술인을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보던 질문이 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할 수 있었나요? 문화예술로 먹고 사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묻기를 몇 년. 모든 지역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답을 듣고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0년 정도 꼭 참고 버티기!’ 문화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근근이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결혼 같은 일상 생활을 포기하면서 또는 배우자에게 경제생활을 의존하면서, 다른 일로 투잡을 하거나 알바 등을 해오면서 버텨왔다는 거다. 문화예술인이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단 말인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십년 정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버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말은 정답에 가깝긴 하다. 10년 정도 일하다 보면 독자적인 콘텐츠, 네트워크, 경험&노하우 등이 생기면서 풍요롭진 않더라도 본인 앞가림은 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높더라.)

다른 하나는 ‘돈은 다른 일로 벌기’이다. 오래 버티고 있는 상당수가 부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페, 식당, 옷가게 등을 하며 번 돈으로 문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거다. 이럴수가, 그렇다면 문화예술 활동을 오롯이 ‘직업’으로는 말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몇 년 전 이렇게 대략의 결론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업 특성이 강한 문화 분야(K-Pop, 게임, 축제 같은 행사업, 관광업 등)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로 먹고 사는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방법’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의 일반성과 보편타당성은 ‘필요조건’의 재능과 학습을 거친 사람이 하루 8시간 주 5일간 일하면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이다. 문화예술 일을 하면서도 원한다면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업 문화예술인들의 상황은 어떤가? 2021년 진행된 광주 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연평균 소득은 1,148만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경험은 절반 이상인 52.3%로 주요한 ‘생계’로 드러났다.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 안타깝지만 ‘노오력’만으로는 아주 어려워 보인다. 재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오늘도 위기의 파도 앞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광주가 ‘문화도시’가 되고 싶다면 충분한 재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문화예술인이 부자는 못 되더라도 ‘배고픈 삶’은 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사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직업 만족도도 아주 높은 편이다. 그런데 그건 내가 ‘결혼 전부터 애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점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자녀 없이 부부가 맞벌이 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경제적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을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문



호랭이스쿨 프로젝트

화예술 NGO 활동, 창작 활동을 중심에 두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 어딘가 공공기관 등에 취직을 하려 했거나, 돈이 되는 행사 용역 중심의 업체를 운영했으리라. 그래서 청년문화허브를 설립한 이후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었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가 자연스럽게 나의 화두가 된 것이다.

물고기 잡을 강과 바다를 만들자

취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 등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강과 바다 그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강과 바다가 없는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나,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물고기 가져다주는 것이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는 몇 안 되는 우물과 저수지를 소수 몇 사람이 운 좋게(?) 선점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런데 중앙정부, 지자체의 문화예술 정책 대부분은 기존에 으레 해왔던 단편적인 지원 사업, 일회성의 행사성 사업, 수료 후 갈 곳 없는 인력양성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가능성’을 디자인하지 못한다.

지속적이고, 자생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문화생태계 구성을 비전으

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명석이다. 그런 시스템과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술하게 들은 문화예술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정책과 지원은 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난 확신한다. 관에서 먼저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작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간 경험을 통해 단체장의 특별한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 한 혹은 수반되더라도 관은 시스템적으로나 홀로 변화를 시작하기 쉽지 않다. 새가 양 날개로 날 수 있듯 민과 관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 관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럴 의지를 가지도록 민간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야 한다.

연대와 협업을 시작하자

개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도량, 우물을 찾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다. 우선 본인이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하지만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강과 바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법률의 개정, 새로운 시장(market) 개척, 새로운 지원사업 개발 등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강과 바다는 한 개인, 단체가 만들 수 없다. 민·관·정·산·학·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의 연대와 협업’을 우선 시작하는 일이다. 민간의 활발한 연대와 협업, 민관 거버넌스(협치) 이 두 가지가 문화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내가 찾은 시작점이자 기본 전제이다.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만 담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박과 같

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협업하며 민관산학연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문화 민주주의’가 따로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문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활동들이 갈수록 축소되고, 일부 사람과 단체들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전통적인 방식의 연대에 공감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 각자도생의 시대에 연대 활동에까지 시간을 내기에는 지금 당장이 어려운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연대와 협업을 시작하고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라면 본인들의 필요와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드시길 권한다. 버스킹 예술인 단체, 시각 예술인 단체, 공연 예술인 단체, 20대 예술인 단체, 30대 예술인 단체, 동구 예술인 단체 등등 씨줄과 날 줄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구성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끼리 모여서 ‘단체들의 연대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기존에 단체들의 연대체로 활동하고 있는 예총, 민예총, 문화도시협의회, 상상실현네트워크처럼 말이다. 연대와 협업에 따른 여러 부수효과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일단 연대가 구성되어야 민관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문화로 먹고 살기?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 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시작하면 좋겠다. 우리 함께 강과 바다를 꿈꿔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 ♪



정두용 (사)청년문화허브 이사장

광주 예술계 권리 침해 이슈

공론화된 사건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분들을 처벌(징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독했던 과정 끝에 얻게 된 결과 앞에서 조금 더 끈기 있게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는 일은 늘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 예술계에서 발생했던 사건·사고를 공유하는 일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 개선되고 만들어진 일들만큼은 모두에게 필요했었던 일이었음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 함께해 주신 감사한 분들이 누구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500여 명의 광주 예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 조례, 광주연극제 예산 증액, 2021 광주예술인 실태조사, 신고센터의 운영, 피해구제 등을 가능케 해 준 과정입니다.

공론화된 사건이 갖고 있는 피해와 아픔만큼 공론화 이후 진행되는 입증과 다툼, 수사와 재판, 사실 왜곡 등의 상황에서 문제의 직/간접 당사자들이 겪는 2차 피해의 아픔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연대자 모두 치유와 일상 회복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 사과하는 일, 책임지는 일, 합

계하는 일은 미룰수록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고 무책임에 대한 원망(원한)이 쌓인다면 그 회복은 예술계 환경을 개선해 가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갈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계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의 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2020년 9월 발족~현재)

2020년 광주시 산하 공공예술기관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작품 참여 예술인 노동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안전사고, 사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역 예술



광주시립극단

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의 필요성을 느낀 예술계의 제안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 시,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 예술인 권리 보장 TF에서 광주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성 평등, 성희롱/성폭력 ▲노동권리 ▲독립적인 권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권리보장 심의위원회 구성 ▲예술인 보호 책임자 지정 ▲피해구제와 예방,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담길 예정입니다.

대책위원회 구성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 민족예술인 단체 총연합, 광주청년유니온, 극단연인,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서울 문화예술위원회), 소년의 서,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창작그룹 MOIZ

성과와 남겨진 과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판단과 가해자 징계,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고용형태와 운영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근거로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할 조례 제정을 약속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광주시립극단과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존재하고 피해자만 떠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2022년 4월 발족~현재)

2022학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강의 전담 교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무용과 학과장 A 교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채용 비리 정황을 알게 된 지원자 C 씨가



조선대 무용과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할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한 조선대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학과장 A 교수의 문제를 공론화한 사건입니다.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지원자 C 씨가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 공론화 과정에서 채용된 B 교수가 재직했던 송원대학교와 자신이 운영했던 학원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입시와 채용의 비리, 학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목표로 결성된 대책위원회는 학교와 두 교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

광주청년유니온, 故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 모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졸업생 모임,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성과와 남겨진 과제

2022년 11월 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무용과 B 교수의 혐의를 규명해 B 교수를 검찰

송치했습니다. 여전히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학과장 A 교수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용기를 낸 학생들이 여전히 해당 교수들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두 교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처벌을 통해 다시는 무용계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광주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원회

(2022년 6월 발족~현재)

2012년, 2016년. 배우가 되기 위해 극단에 입단한 피해 생존자들은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A 씨, 동료 배우 B 씨, 타 극단의 대표 C 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너를 키워줄 수 있다”, “나는 네가 맘에 들어”, “좋은 배역을 줄 수 있다”. 대표, 연출, 선배라는 지위와 권력. 선생님으로 불리며 예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관계와 폐쇄적인 시스템을 악용하여 피해생존자들의 존엄을 훼손했습니다.

연습실, 공연장, 노래방, 밥집, 술집, 흡연장, 차안, 숙박업소, 자택 등 공간을 가리지 않고 권력, 권한, 지위, 위계, 관계를 악용해 강요, 강제, 억압, 협박, 감금을 통해 상습적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생존자들은 10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공황, 불안증, 우울증, 자책감, 대인기피, 흥미 상실, 불면증, 악몽, 무기력, 탈모 등의 증상을 겪어오며 정신과 육체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많은 것이 개선되고 있는 예술계지만 그보다 더 앞선 2012년의 광주, 촘촘하게 연결된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근거와 도움받을 조력자도 없었던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피해생존자들이 영원히 연극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연극계의 배제와 추방 등의 위협을 감수하며 사건을 공론화했습니다. 현재 대책



연극계 성폭력

위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여성민우회,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성과와 남겨진 과제

가해자 3인 제명(광주연극협회, 한국연극협회), 교육 중지 조치, 지원 사업 중지 조치 등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선제적 조치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반인륜적인 성폭력 가해를 한 세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계 동료분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



장도국 배우



“허공을 향한 ‘문화’ 슬로건보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도시로”

김정희 재단 편집위원,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하드웨어 치중보다 프로그램 운영비 늘렸으면
ACC 시민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 필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개선책도 검토해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경제부시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가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선임한지도 100여 일이 지났다. 민선 8기의 차별화된 문화정책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대한 다양한 생각에 대해 듣고자 그를 만났다.

김정희(본지 편집위원 이하 문) 광주는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지만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선 8기 첫 문화경제부시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 등 남다른 소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진(문화경제부시장 이하 답) 광주라는 도시는 저에게 아이러니지만 낯설고 친근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중앙의 경제 관료 출신을 모시고 올 때 고향이 어딘가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나이는 조금 어린 편이지만 국회의원 4년과 청와대 비서관을 거쳤고 그 이전에도 공직에서 실무 감각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력으로 치면 낙선 후에도 대기업들의 스카우트 제의가 아주 많았습니다. 임명 당시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판단하기에 저의 쓸모가 충분하게 있다고 가치 판단이 있으셨기에 선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취임 100여 일이 지났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평가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지면을 통해서라도 지금쯤 재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 그동안 지역 문화계는 광주라는 도시의 지향점을 반영하여 일관되게 문화행정 컨트롤타워로서의 문화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선 7기에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둔 무늬만 문화경제부시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민선 8기 문화경제부시장의 위상과 역할이나 부시장님의 업무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답 역대 제 위로 이병훈 의원님과 조인철 부시장님이 문화경제 부시장이라는 직함으로 일을 추진하셨지요. 이병훈 의원님은 문화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조인철 부시장님은 기재부 출신에 경제관료셨으니까 경제적 관점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저는 100일을 돌아보면 지역 문화계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를 높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못지않게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민선 지방자치 도입 이후 시정 목표에 ‘문화’라는 키워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민선 8기가 처음이라서 의외였고 아쉬웠는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속에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를 강조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선 8기만의 차별화된 문화정책과 핵심 과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답 역으로 그동안 민선 7기까지 ‘문화’라는 타이틀이 슬로건에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문화 향유가 잘 되었을까요? 그때는 잘 됐는데 ‘문화’가 빠져서 안 된 것 같다고 한다면 그 비판이 의미 있겠지만



실은 허공을 향한 ‘문화’ 슬로건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로써 문화가 시민 속에 녹아들게 만들까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꿀잼도시’ 라고 하는 것에 문화가 담겨있거나 아니거나 라는 논쟁보다 광주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산 집행율로 생각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의 문화예산 집행율은 타 어느 도시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체감도는 많이 낮은 도시입니다.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문 문화예산의 집중 비율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문화예술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본다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답 그 점이 광주 예술 문화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구조적인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광주는 문화예술 사업을 대부분 국비를 기반으로 문화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똑같이 500억을 가지고 있으면 500억을 국비를 받아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억중에 400억은 국비 매칭으로 갖고 있고 100억만 자체 사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비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물을 짓거나 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중심이 쏠립니

다. 제가 느낄 때 ‘지맵’이라고 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관이 있는데 물론 좋은 시설이지요. 없는 것보다 좋은 것이지만, 과연 저 ‘지맵’에 들어가는 25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시립미술관을 찾는 관객들이 그 공간까지 들어가서는 안보니까 문화 향유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미디어아트 전시회를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하지 않고 250억의 반인 100억만 들여서 시내 버스 정거장을 미디어아트로 바꿀 수 있었으면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것을 더 많은 이들이 인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봅니다.

문 거리를 걸으면서도 문화 향기를 체감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도시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지난 예로 보면 폴리 사업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부분도 있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부분도 있어서 정책적으로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 예술가 분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도 중요한데 그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폴리 같은 조형물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를 포함해 공연 횟수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문화시설 등 인프라 측면과 예술인 실태에서도 광주의 예술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외에도 문화예술의 근간인 기초예술의 활성화와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서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는 문화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답 인프라에 대해 체감도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통계에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표적인 공연장이 문화예술회관

인데 대극장과 소극장이 다 리모델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연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 아시아문화전당도 훌륭한 공연장인데 대관 절차에 문턱이 높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답 ACC는 거의 예약으로 채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예술회관은 공연이 워낙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광주에 천석이 넘는 예술 공연장이 적긴 합니다.

ACC를 제외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곳인데 대구만해도 천석이상 공연장이 7개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 대구는 오페라 전용 극장, 콘서트 전용 극장도 따로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예술회관 하나에서 다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인프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드웨어 쪽이고, 두 번째는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 것인데, 오랜 기간 예향의 도시인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는 직업으로 예술인인 사람과 일반 시민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광주·전남 정도의 상황이 되면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아서 전업 작가와 일반 시민과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한 층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층까지 어느 때는 작가로 인정해야 하고 어느 때는 전업 작가는 아니라는 쪽으로 구별되죠.

저는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름 붙여져 있지만 역으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광주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ACC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명색이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를 하나 마나 논쟁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광주의 공간이니 시에서의 책임은 광주시민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문 문화와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장시킨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타 시도에 비하

부시장으로 결정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광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동력들을 잘 활성화하는 것에 주춧돌만 잘 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민선 8기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사업은?

답 문화경제 부시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부시장이 되면서 처음에 취임사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년의 축적이라고 하는 결정체인 문화라고 하는 것과 요즘 경제 산업은 천만분의 일초를 다투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 왼손에는 천년의 시간을 주고 오른손에는 천만분의 일초를 두고 둘 다 잘해라 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이원화 되지도 않고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는 각자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광주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결정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광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동력들을 잘 활성화하는 것에 주춧돌만 잘 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광주는 공간으로써 문화 자원도 자원이지만 광주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긴 시간의 예향으로써 시간의 축적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된 예술인의 권리 보장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에 발맞춰 광주도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 TF를 구성하여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갑



질, 불공정 계약 등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도 광주시의 노력으로 일부는 개선되었지만,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민선 8기의 특단의 대책은?

답 사실은 문화예술 보조금은 금액의 문제로 산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세 배 늘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풍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한가 라는 논쟁은 있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을 위한 단계의 전 단계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만 계속해야 하는 사업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필요한 것인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부분은 고민이 많습니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무대에 올리고 적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직업 예술인으로 창작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만 지금은 보조금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답 그러니까 지금은 구분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취미활동을 한번 선보이고 싶은 사람을 위한 보조사업과 일정 정도의 매표를 통해서 전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람의 수준과 어찌보면 동일하게 공모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민선 8기 들어서 ‘월요대화’ 등 지역문화계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광주시가 협치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취임이후 ‘문화’를 키워드로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인, 단체 등과 소통하신 것 못지않게 부시장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면을 통해서 제안해 주십시오.

답 공중에 떠도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양산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떤 주장을 요구하는데 반영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그 정책에 반하는 것을 독주를 하거나 할 때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지역문화계에서는 어떤 합의된 안이 있는 것인가 그 논의가 예술계에서는 논의되었는데 행정에서는 거부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합시다’ 했을 때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바가 없고, 개별 제안에 대해 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논의하자고 할 때 ‘당신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한 적도 없습니다.

소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는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갈 생각이 있으니 연락주시고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광주가 진짜 문화예술 도시라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문화+人_ 문화인 인터뷰 | 이승규 작곡가



예술 위에 물음표를 얹는 잡.곡.가.

이지호 재단 편집위원, 사업팀장

어릴 때부터 끼도 많고 재주도 많았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이 지역을 알리는 대표 작곡가로 매체에 소개되면서 여간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연락처를 바꾸지 않은 승규형 덕에 쉽사리 연락이 닿았다. 알게 모르게 재단과도 다양하게 함께 하고 있었던 이승규 작곡가를 만나 본다.

이지호 이렇게 보게 되니 더 기쁘고 반갑네요.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음악으로 삶의 방향을 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승규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승규입니다. 제가 음악은 원래 좋아했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음대는 못가고 보건대를 가게됐죠. 그런데 음악이 너무 하고싶어서 꾸준히 하고는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보니 깊이 있게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코스는 아니었어요. 학벌도,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개척하고 매해 작품 발표하고 그랬어요. 올해도 표해록 재해석 작품도 9월에 발표하고, 이금주 할머니 쇼케이스도 하고, 이번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공연을 해요. 다음주 장덕동 한옥에서 공연하고, 이번달만 오페라 음악 3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지호 음악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재주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작곡만 하고 계신건가요?

이승규 음악을 하다보니 다른 것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를 잡곡가라고 표현합니다. 잡다한 것 다하는 사람이에요. 작곡가, 피아니스트, 연출가, 기획도 하고, 최근에 특허도 내고, 발명도 하고, 하고 싶은게 많아서 다 해보고 있어요. 특허 출원은 지난 주에 하나 내고요. 악기를 만드는 걸로 하고 있고 업사이클로 바이올린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엔 예산이 되면 현악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올린을 업사이클링하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색깔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획해보고 있어요. 11월 행사가 많아서 정리가 되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면작업하고 업체 만나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발명해야죠.

이지호 지역성을 가진 음악이다보니 저희 재단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재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것같아요.

이승규 제 음반이 2, 3집은 다 광주에 대한 것인데요. 광주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돈은 안돼요. 사업성은 되죠. 로컬이니까. 지역에서는 인정받지만 그 외에서는 인정 못 받죠. 이게 지역성의 한계예요. 그래서 광주 외의 사람이 이것을 보고 광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소재를 삼는게 너무 중요해요. 뻔히 아는 것이나 너무 생소한 것이면 안되고 어느 정도 재밌고 특이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예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또 공연예술도 계층이 많잖아요. 성인과 청소년과 유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악기로 쓸 것인지 예산의 범위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지호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희 재단이 구축한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이트를 보고 영감을 받으신 적도 있으시다고요?

이승규 2016년부터 광주에 대한 로컬 곡을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 공인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하나씩 논문을 찾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작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말씀하신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요. 쉽고 간단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의 다양한 소스를 거기서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곡을 기획할 때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가 있

고 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게 뭐가 있을까, 다양한 지역 정보에 대해 넓고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 참고합니다. 또 노성태 원장님이라던가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을 받죠.

이지호 노성태 원장님도 저희 재단 지역문화컨텐츠 연구소장님이신데 도움을 받으신적이 있으신가 봐요.

이승규 노성태 원장님은 제가 2020년에 알게 됐고요. 제가 ‘창작 음악과 함께하는 광주 인문학’이라는 공연을 만들었고 강의와 공연을 같이 했는데 그때 강의로 오셔서 알게 되었죠. 학자시고, 센스있으시고, 열려있으시고 광주에 꼭 필요한 분이라 생각해요. 이금주 할머니에 대한 것을 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셨어요. 그 분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면 어땠겠냐 말씀해 주셨고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작업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딱 운 좋게 문화재단에서 올해 지역문화자원 콘텐츠 지원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주 목요일에 쇼케이스 하고 내년에 정식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지호 이번에 저희 재단 운영위원이신 주홍 작가님과도 협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는데요. 독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이승규 주홍 작가님과 고근호 작가님과 저, 세 명이 작업을 했고요. 업사이클링, 신조어로 새활용, 새활용을 통한 첼로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작했을 때 현악기를 만드는 분에게 부탁했는데 못한다고 하시고, 발명가분과 하려고 했는데 도면을 달라고 하니까, 도면이 있겠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주홍작가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거 만들 수 있겠냐 여쭙니 정말 재밌겠다고 함께해 주셨고요. 저보다 물질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시각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셨죠. 이 유니크 첼로가 연주하지 않



아도 관상용으로 전시해도 정말 아름다워요. 곧 목포에서 전시도 시작합니다.

농가에서 흔히 쓰는 어깨에 메는 스테인리스 농약 분무기통을 고물상에서 주워 왔고 집에서 안 쓰는 악기, 가치가 없는 연습용 첼로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이질감이 드는 이 두 가지 물질을 하나로 합친 것이죠. 처음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소리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요. 업사이클링 악기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타악기입니다. 왜냐면 때리면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현악



기입니다. 튜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무조건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4중주 유니크 첼로 콰르텟을 만들어서 YTN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나오고요. 이제 음반도 작업해서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지호 보니까 첼로 4개로만 만족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승규 올해는 4중주 첼로 팀을 만들었다면 내년에는 12개의 첼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소리가 더 멋지고 웅장하겠죠? 예산만 되면 12첼로를 하면 어떨까, 정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콘텐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미 12첼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베를린 필하모닉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연주되는게 있는데 유니크 첼로로 연주하는 것은 최초죠. 이건 지구상에 없었던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악기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 이 악기만 할 수 있는 주법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개발중이고 그렇게 개발하다 보면 곡에 응용하는 거죠. RND라고 하잖아요. 원천기술을 파악하면 실제 쓰는 도구에다가 접목하듯이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이지호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광주’를 음악으로 표현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나요?

이승규 로컬의 핵심은 음악이 주가 아니라 스토리가 중심이 되어 해요. 언어를 통해 전달이 돼야 하는데 잘못되면 주객전도돼요. 음악이 중요하고 스토리를 이용한다면은 이걸 좀 반대의 개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 지역성이 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지인들이 광주라는 곳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 부담스러운 곳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5·18이 너무 강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투쟁적이잖아요. 민족주의적이고 요즘 시대에는 부담스러워 하죠. 요즘에는 가벼운 것 좋아하고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가볍고 재밌게 만들어볼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다가가는 거죠. 스토리는 변하지 않아요. 본질이니까. 하지만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음악을 하니까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죠. 광주는 아직 너무 매몰돼 있다고 봐요.

이지호 그렇죠. 제가 볼 때에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광주를 표현하기에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재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 일부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해 보여요.

이승규 관점을 바꿔야죠. 관점을 바꾸라는 것은 무엇이나면, 어떤 소년이 봤을 때 5·18, 군인이 봤을 때 5·18, 어떤 나무가 봤을 때 5·18, 그런 관점을 달리했을 때 가능하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그것을 용인하느냐가 중요하죠. 지역을 다루면서 가장 힘들게 뭐냐면 용인을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들이나, 기념사업회나 어떤 사람을 추모하는 조직에서는 원리원칙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 하길 원해요. 그럼 너무 설명적이게 되고 유치해져 버리고 흥미와 관심도도 떨어지죠. 저희는 예술가지, 학자나 교육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순간 예술의 기능이 떨어지죠. 보고 듣는 이가 무엇을 느꼈는가, 이제 관심이 생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확실히 고증을 했냐, 안했냐를 따진다는 거죠. 단순히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인지만 해도 굉장히 물질적, 홍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지호 예술이라는 것이 자주 경험해봐야 수용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광주가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에 비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감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작곡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승규 답은 살롱입니다. 살롱들이 활성화돼야 해요. 광주는 음악회, 연극 등을 보려면 ACC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큰 곳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회관 중심이 아니라 살롱이 만들어져야 해요. 요즘 유행하는 슬세권(슬리퍼+역세권의 신조어)처럼 문화예술을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해요. 유럽에는 그게 굉장히 잘돼있어요. 동네마다 극장이 있고 거기에 모든 예술이 올라오고 거기서부터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역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향유하고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다 느껴지고 지역기반의 예술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죠. 살롱같은 공간이 활성화가 되어야해요. 대규모 공연은 끝나고 관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술가도 팬을 만들어야 하고, 팬도 예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단

말이죠. 와인이라도 먹고 같이 차라도 마실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롱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 공간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꾸준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과 예술을 매칭해주고 그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지호 광주를 주제로 더 작업하고 싶은 소재가 있는지, 또 그 밖에도 하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승규 음악을 통한 인생 아카이브를 해도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고 사람 이야기 자체가 역사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산물이니까, 광주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써 이 사람을 음악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시민들을 곡에 담아서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궁극적 목표는 세계진출, 우주정복이고요. 지금도 정말 많은 것들을 구상중인데 무엇이든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길도는 음악을 하게 되면 제 스스로도 화가 나요. 최선을 다해야지만 관객이 감동을 느끼지 그저 하는 척하면 관객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예술가로써의 역할을 다 해야죠.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고 질문하지 않았던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 예술의 가장 큰 원천적인 기능이자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촬영을 핑계로 연주를 부탁했다. 며칠 전 발매된 4집 〈時〉의 타이틀 곡을 옆에서 들으며 관객의 감동은 악기의 질이 아닌 연주자의 '진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확실히 느꼈다. 광주에 진심인 그가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써 계속 활동해주길 바라 본다. ♪

세상에 없던 강통첼로, 농약같은 연주라니

#소개

유니크의 뜻은 ‘독특한, 특별한, 고유의, 특이한, 개성적인’ 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독특하고 특별한 첼로를 가지고 4중주를 하는 그룹입니다. 저희는 스테인레스 농약 분무기와 연습용 첼로를 결합한 유니크 첼로 4대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요. 이 첼로는 이승규 작곡가님, 고근호 작가님, 주홍 작가님을 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룹 창단 계기

이승규 작곡가님의 연락이 있었어요.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한 재활용품으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는 파라과이의 랜드필 오케스트라를 보고 감동을 했고 버려진 농약분무기로 첼로를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금속 재질인 농약통에서 어떻게 첼로 소리가 나는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악기를 접했을 때 완벽한 첼로 소리는 아니지만 제법 악기 소리가 나 정말 신기했어요. 업사이클링한 악기에 대한 편견이나 의구심도 사라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강통악기 연주란

대부분 현악기의 소리는 나무로 되어있어서 깊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데 농약통으로 업사이클링한 첼로는 금속이라서 날카롭고 짹짹한 강한 소리를 내는데요. 4명의 첼리스트가 새로운 악기에 적응하며 소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터라 힘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유니크한 첼로의 음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희는 브릿지 위치와 각도 등을 미세하게 조정해 가면서 소리의 길을 찾아갔고 연습할 때 현에 문제가 생기면 드릴을



이용해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며 연습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농약통으로 연주를 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재밌고 신선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반응

유니크첼로 콰르텟은 1년도 되지 않은 팀이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발전하고 자원의 엄청난 소비와 함께 무수히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그에 따라 또 무수히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보존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재활용 악기를 통해 지구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주제로 창단 연주회를 열었는데 이 연주를 통해 쓸모없는 쓰레기로 4대의 유니크 첼로를 만들어 예술계의 신선함을 선사했어요. ‘쓸모’와 ‘무쓸모’를 우리는 확실히 구별하고 있을까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보고 듣는 대중분들에게도 단순히 환경을 위한 퍼포먼스 차원의 의미를 넘어 기존의 연주회나 음악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로도 많이 접근한 것 같아서 여러모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콰르텟의 비전과 목표

저희 말고도 업사이클링을 통한 악기 연주는 꽤 보



입니다. 타악기는 많이 보이지만 농약통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팀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현악기는 소리에 매우 민감하고 그만큼 제작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에서였어요. 하지만 제작자 분들의 도움을 통해 유니크 첼로 만의 독특한 소리를 찾을 수 있었고 더하여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대중들에게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게 된 콰르텟은 앞으로도 이런 즐거움을 대중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과 지구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가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직격탄을 맞은 공연계는 그동안 대중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는 대중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가영 유니크첼로 콰르텟 첼리스트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

- 마고여신 4

이처럼 단군은 마고의 뜻을 복원하여 나라의 기틀로 삼았고, 박제상이 쓴 『소(小)부도지』에는 그 전통이 신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요순우(堯舜禹) 3대를 모두 적대시켰다.

‘도요(陶堯)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맨 먼저 마고성을 떠난 무리들의 후예였다. 요는 9주의 땅을 그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5중(五中 - 동서남북 ‘중’)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며 당도(唐都)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게다가 엉뚱하게 역(曆)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폐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간 세상의 두 번째 큰 변이었다.’

중국 전설 시대 제왕이었던 요는 처음에 도(陶)에서 살다가 나중에 당(唐)으로 옮겨 도당씨로 불리는데, 역사에서는 당요(唐堯) 또는 도요로 불린다. 그런데 『부도지』에서는 도요가 맨 먼저 마고성을 떠난 무리들의 후예라고 했다. 박시인은 『알타이신화』에서 요순의 전설을 알타이신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순임금이 동이족이라는 사실은 중국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시인은 요임금 역시 화하족(華夏族)이 아니고 북방민족 계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주사기』

이덕일은 『신주사기(新註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서 화하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황제(黃帝) 역시 동이족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복희와 소호를 동이족이라 인정하는데, 사마천의 계보에 의하면 복희는 소전을 낳고 소전은 황제를 낳았으니 황제는 동이족이 분명하고, 또한 소호의 아버지가 바로 황제이니 황제는 동이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요는 황제의 증손자이니 그 역시 당연히 동이족이 될 것이다. 요즘 중국학자들 사이에서도 중국 상고 시대의 역사는 동이족의 역사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던 박시인이



만주에 있는 의무려산 모습

요순을 알타이신화로 분류한 것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오미의 변’ 때문에 사람들은 마고성에서 쫓겨났고, 황궁씨의 후손들은 다시 복본을 위해 마고성을 본떠 부도를 만들었는데, 요는 ‘부도의 역(曆)’을 거역함으로써 하늘의 뜻을 저버렸다. 이는 ‘오미의 변’에 이은 ‘역의 변’으로서 복본(複本)의 관점에서는 대참사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임검은 유인의 손자인 유호(有戶) 부자를 보내 요를 깨우치려 하였으나, 요는 유호의 아들 순(舜)을 두 딸로 유혹하여 순을 포섭해 버렸다. 이에 유호는 둘째 아들 상(象)을 시켜 당도를 혁파하게 하였는데, 요는 간혀 있던 중 죽고 순은 창오의 들에 도망하였다가 우에게 살해되었다. 우는 도읍을 옮기고 유호에게 항거하면서 자칭 하왕(夏王)이라 칭하였다.’는 줄거리를 다.

중국 요순우시대에 대한 아주 색다른 시각이다. 중국 최초의 왕조라는 하나라의 건국도 부도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우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마고신화는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 건설로 이어지고, 이러한 전통이 연면히 이어져 신라로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부도지』는 ‘허실기화수토(虛實 氣火水土)’설에 입각하여 중국의 음양오행설을 황당한 설로 치부하고 있다. ‘허실기화수토’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계(實)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허공(虛)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화수토의 네 요소로 짜여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 요즈음 도반들과 함께 주역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주역의 우주관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무극(無極) 상태였는데, 음양이 처음 생겨 모든 세상만물이 나타났다고 한다. 무극 곧 태극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음과 양이 어떻게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태극이니 음양이니 하는 말은 세상만사를 하나의 짜임새로 풀어보려는 가설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어쩐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를테면 금과 목은 땅에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땅과 더불어 우주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에 비해 우주를 허실의 두 세계로 구분하고 우주의 기본 요소가 기화수토라는 설은 이해하기 쉽고 바로 수긍할 수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요와 음양오행설에 대한 비판을 좀 더 들여보자.

‘요는 천수(天數)를 몰랐다. 스스로 9수5중(九數五中)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중략) 오행(五行)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주창함으로, 소부와 허유 등이 심히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중략) 때에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負文)과 명협(莫莢)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 하여 그것으로 역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폐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세(人世) 두 번째의 큰 변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천부(天符)란 천리 즉 천수지리(天數之理)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천의인장(印章) 즉 신표의 뜻도 가지고 있다. 천리를 숫자



김해성 화백이 그린 박지원

로 표현한 것이 천부경이며, 이 천부경을 새겨 천권을 표시한 것이 천부인(天符印)이다. 한국의 고대 국가에서는 천부인을 천권의 상징으로 여기고 후계자에게 전수하였다. 4절5촌(四節五寸)으로 되어 있는 금척(金尺)도 천부인의 일종인데, 1부터 9까지의 허수와 실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만사의 이치를 음양오행으로 체계적으로 포괄한 주역에 비해, 천부경은 큰 개요만 나와 있고 주역과 같은 방대한 체계를 알 수 없어서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다.

『부도지』는 오행설에 대해 천수의 이치에 이러한 것이 없고 금목수화토를 수성(數性)에 짝지을 수 없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금목수화토를 동서남북중으로 짝 지우거나 오방색으로 짝 지우는 것이 작위적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을 사대(事大)하던 조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도지>의 주장은 조선 시대 북학파의 한 사람인 홍대용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홍대용은 청나라로 가는 사행 길에 우리나라 역사와 매우 깊은 인연이 있는 의무려산에서 ‘의산문답(醫山問答)’이라는 글을 지었다. 그는 ‘의산문답’에서, ‘오행의 다섯이라는 수는 원래 정해져 있는 수가 아닌데, 술가들이 이를 조술하고 하도 낙서의 이치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고 주역의 상사(象辭)로써 이에 천착하여, (중략) 결국 아무런 이치도 없는 것이요.’ 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암 박지원도 홍대용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북학파의 한 사람이다. 박지원은 안정복이나 정약용 같은 조선선비들과 역사인식이 매우 달랐다. 그는 『열하일기』 속에서 만주를 매우 주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열하에서 만난 청나라 학자들에게 아주 당당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홍대용과 박지원이 청나라 문물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음양오행설을 강하게 비판한다거나 만주에 대한 주체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천부 사상이 발현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다. ♪

— 마고여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상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두 도시의 경계를 넘어

- 광주와 성남 도시교류전시 <공존>

서늘한 듯하면서 아직은 따뜻한 코끝이 간지러운 공기, 곳곳이 붉고, 노란빛을 들이고 있는 도시의 풍경은 사뭇 생경하다. 발걸음을 옮기는 도시의 곳곳마다 미묘한 시선을 그리고 있는 계절에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이강하미술관에선 광주·성남 예술가들의 교류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경계와 균열, 새로운 연결의 공공예술> 展은 2022년 초 이강하미술관과 성남문화재단의 지역 예술가 교류를 위한 MOU 협약으로부터 시작해 5월엔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에서 첫 도시교류전시 <공존> 展이 진행되었다. 11월은 그 두 번째 도시교류전시가 광주 이강하미술관에서 막을 올렸다. 각기

다른 두 도시(광주, 성남)의 물리적 거리 281km, 3시간 50분이 걸리는 거리이다. 이렇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두 도시를 방문하여 두 발로 도시를 걷고, 느끼고, 이야기하며 흐르는 계절을 보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들이 바라본 도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미술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전시 타이틀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지하철의 노선도를 보는 듯하다. 광주 1호선의 초록색으로 그어진 선을 따라 보면 광주 작가 3인(김경란, 박성완, 이뿌리) 이름과 지역 번호인 062가 쓰여있다. 수서역을 가로지르는 서울 3호선의 주황색 선을 따라 보면 성남 작가 3인(이나



김경란 「직조된 도시」



이뿌리 「너비-깊이-높이」



1 전시타이틀 '도시의 경계와 균열, 새로운 연결의 공공예술' 2 박성완 「이강하의 묘」 3 이나영 「숲 속의 아이들」 4 최지원 「돌아서 가는 길」

영, 이찬주, 최지원) 이름과 함께 경기도의 지역 번호인 031가 쓰여있다. 마치 미술관이 광주와 성남을 지나는 거대한 환승역이 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전시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입구부터 기계 모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첫 번째 이찬주 작가의 작품 <도시민>이다. 커다란 검은 단상 위, 네 개의 크레인 구조물이 일정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다. 그리고 크레인의 끝에는 줄로 분필이 매달려있어 움직임에 따라 계속해서 원형의 궤적을 그려낸다. 이는 끊임없이 노동하는 우리의 삶과 함께 도시 속 다양한 사람들의 충돌과 그 충돌을 막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막아내는 안전선을 긋는 행위로써 드러낸다.

다음은 커다란 벽을 가득 채운 박성완 작가의 회화 작업이 보인다. 작가는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이나, 일상적 삶의 단면을 캔버스에 특유의 남도 인상파 기법으로 담아낸다. 전시 동선을 따라 작품을 차례로 살펴보면 퇴근하는 공사 인부들의 모습, 광주 학동 참사의 구조 현장,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묘역, 故 이강하의 묘 옆의 흰색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의 모습, 경기도 성남의 태평동과 남한산성, 광주 대인시장 이모들의 모습은 광주에 사는 이라면 한 번쯤은 마주했을 풍경에 팬스레 반가운 기분이 든다.

전시장의 가벽이 세워진 공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대한 파도 같은 설치 작업은 최지원 작가의 <돌아서 가는 길>이다. 작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창작자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도시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도시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영상과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움직임에 펼쳐지는 종이 소리와 그 위에 그려진 드로잉을 바라보면 어딘가 다른 세계로 떠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찬주 「도시민」

약속이라도 한 듯 무미건조한 표정을 지닌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나영 작가의 회화 작업은 과거 모습을 담고 있는 옛날 사진들 속 인물들을 끌어내, 작가가 구상한 화면에서 또 다른 만남을 이뤄낸다. 이번 전시의 신작 <생일잔치>는 여러 문화 속 도상들(케이크, 파인애플, 떡, 한복, 드레스 등)이 한데 섞여 이질적이지만 미묘하게 어우러져 화려하고 풍성한 화면을 구성한다.

전시장의 가운데에 위치한 <직조 된 도시>는 김경란 작가가 광주 양림동과 성남 신흥동을 오가며 마주한 건축물의 재료인 벽돌에서 유사성을 발견했다. 벽돌의 사진을 찍고, 이어붙이는 작업을 통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도시를 한 화면에서 연결 짓는다. 그리고 아래에 놓인 거울을 바라보면 반사되어 보이는 작품의 모습을 통해선 또 다른 작품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뿌리 작가의 <너비-깊이-높이>는 8·10 성남민권운동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1970년대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광주군 중부면(현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로 이주당

한 시민들은 황무지에 군용텐트 하나를 가지고 살아갔다. 그들에게 군용텐트는 황무지에서 허락된 유일한 집,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작가는 군용텐트와 아날로그 티비를 전시장에 설치해 자신이 걸었던 성남의 풍경을 송출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남에서 채집한 솔방울, 낙엽 등을 배치하여 아픈 역사를 상기하고 읽어낸다.

‘교류’의 사전적 의미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이라 말하고 있다. 광주와 성남, 그 물리적 거리의 수고로운 경계를 넘어 함께한 시간, 계절을 보내며 통함을 느낀 그들이 함께 그린 도시 여정의 좌표와 목적지가 궁금하다면 이강하미술관을 방문하여 여행을 즐겨보자. ♪



이철 기획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 지정 8년째, 손에 쥐어진 게 없다

광주광역시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광주시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은 결코 가볍게 여길 사례는 아니다. 현재 세계 14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분야에 가입돼있으며, 광주시는 2014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선정됐다. 또한 국내 도시로는 유일하다.

이같은 창의도시 지정에 관련된 범상치 않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계, 관련 산업계는 지정 이후의 과정은 '초라한 길 걸음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광주의 시민사회 또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이 도시성장 전략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도시들에게 세 가지의 기대치를 요구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정체성 구현, 창의도시 활성화 전략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실현 등이다. 또한 유네스코는 이를 통해 창의도시 지정도시들이 창의도시 브랜드를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도시를 알리고, 이를 통해 미디어아트 창의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표방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이같은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사실상 광주는 제 자리 걸음에 머물러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페스티벌이 운영되고, 미디어아트 파사드 이벤트가 펼쳐지고 미디어아트 전용 인프라가 세워졌으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의 본 취지가 구현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지금까지 광주시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운영 전략은 아티스트 지원, 페스티벌 개최, 미디어아트 센터 구축 등에 불과하다. 물론 이들 분야들이 내용면에서 만족할만한 성취를 이뤄냈다는 것은 아니다.

아티스트 지원은 미디어아트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소수의 전업작가들 지원에 집중되면서 신진 청년 아티스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페스티벌 또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걸맞게 글로벌 대표 축제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지역에서 펼쳐지는 여타 축제들의 위상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미디어아트 센터 또한 시립미술관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면서 미디어아트 갤러리 기능에만 함몰, 융복합 랩 기능이 전무해 미디어아트 관련 융복합산업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리옹빛축제



아르스일렉트로센터

특히 미디어센터의 랩 기능이 상실되면서 유네스코가 창의도시들에 바라는 핵심 요구사항인 미디어아트 네트워크 도시들과의 지식 및 정보공유 노력에 답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역할도 함께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네스코는 창의도시 지정에 따른 의무도 요구한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들과의 지식 및 정보공유 노력, 지속성장을 위한 미디어아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삼는 유네스코의 요구들을 실행하지 못할 시에는 두 차례의 서면경고를 거친 후 창의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까지 진행된 광주시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프로젝트 추진 콘텐츠들을 두고 볼 때 지정 취소의 위기적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다.

쇄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을 도시성장의 핵심 기제로 활용한 도시들의 사례에서 새로운 방향의 동기를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안일 것이다.

프랑스 리옹시는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됐다. 지정 이후 리옹은 세 가지 중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창의도시 지정을 가장 창의적으로 활용, 도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150개 이상 도시조명 프로젝트를 추진을 기반으로 세계적 야관 경관도시 조성, 글로벌 규모의 빛의 축

제 개최, 연관 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도시 조명연맹 설립을 통해 국제적 문화관광산업 도시로 자리매김 됐다.

과학과의 융합을 형상화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비전을 창조해간다는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시의 사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린츠시는 미디어아트와 연관 분야와의 융합을 꾸준히 연구개발하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퓨처 랩’을 설립해 미래산업으로서의 미디어아트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아트 네트워크 도시들의 사례를 두고 볼 때 광주시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전략은 디지털 블루 오션을 열어가고 있는 세계적 산업환경 속에서 미디어아트가 지닌 잠재력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여된 채 협소한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호재 전 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지자체장이 바뀌면 시민단체와의 약속은?

5기 지자체장부터 줄기차게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문화예술 부분 산하 기관장을 전문성 있는 민간인을 공모로 선임하도록 요구한 바 7기인 직전 시장께서 문화 부시장, 문화예술 회관장, 비엔날레 사무처장, 시립 미술관장 등 민간인을 선임했으나, 공모로 선임된 시립 미술관장만 이 지역 출신이 아니지만 광주 비엔날레 초창기 때 큐레이터로 활동한 평론가 출신 전문가를 선임하여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그 관장이 임명될 때 시민사회 단체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한 기억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외의 자리는 시간이 지나 보니 문제점이 하나씩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7기 시장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시민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문화부시장에 경제를 접목하여 문화경제 부시장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행정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 했었는데 그 이후 부터는 문화경제 부시장에 문화예술에는 전혀 무관한 인사들이 임명되었다. 시민 사회단체가 문화부시장을 요구한 배경에는 광주에 산재 되어 있는 여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문화예술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무늬만 문화경제 부시장인 것이다.

비엔날레 사무처장도 시장 측근인 기자 출신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었으나 몇 달 후에 사직을 한 바람에 다시 공무원으로 채워졌는데, 얼마 전 이 인사를 만나 얘기 할 자리가 있었는데 이 인사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 사무처장 자리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고 회계, 경리 등 일반적인 총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일반 공무원이 맞는 자리라고 푸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어 그 자리는 공무원이 해도 되겠구나 싶다. 문화예술 회관장도 시장께서는 측근도 아니고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선거에 도움을 준 정치권 인사를 공모하여 선임되었으나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민간인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차후에는 전문성있는 민간인을 공모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무한 지 2년 몇 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해버린다.

당시 시립 극단에서 작품 연습 중 객원 배우들이 상처를 입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배우들의 갑질에 성추행에 해당하는 언사까지 하고 회관에서는 객원들의 계약서 작성 미비, 배우들의 보험처리 미비 등 객원 배우들의 처우가 형편이 없어 결국 객원 배우들이 광주문화예술 관련 단체들과 합심하여 대책

위를 꾸리고 회관장실을 접거하고 농성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않아 그 빌미로 사임한 줄로 알았는데 시 문화 관광실장 명의로 발표한 내용을 보니 30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 공사의 관리, 감독을 공무원이 해야 되고,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 이것도 해결 해야 해서 부득이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답변서가 전달 되었다.

그리하여 후임에 4급 서기관 공무원을 임명하니 시민사회 단체들이 항의를 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하여, 시장실에서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대면을 하고 면담시 시장께서 (2021년 9월) 문화관광실이 시민사회단체에 보낸 애기와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당분간 공무원으로 인사 조치 후 문제점들을 처리하고 난 후 다시 민간인 전문가로 공모하여 선임토록 할 터이니 2022년 6월까지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리모델링 공사는 9월로 1차 연기되고 2차로 내년 3월까지로 또다시 연기된 상태에서 전임 시장과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약속은 지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치인 출신 전임 문화예술관장이 사임 후 후임 공무원 신분의 관장이 임명되었는데 이분의 근무경력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장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부임 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리모델링에 전문성이라고 하면 인테리어나 실내건축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이나, 시립단체들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련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부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재무·회계 관련 부서에서만 근무하신 분이 부임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전경

그리고 8기 시장이 당선되어 몇 개월 후 시립 미술 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한 후, 얼마 전 새로운 관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였으나 책임자 없음으로 결론이 나와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고가 발표되지 않음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 또한 궁금할 뿐이다.

아무튼 전임 시장이 약속한 문화예술회관장을 민간인 전문가로 공모를 통해 올 상반기에 선임한다는 약속은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진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년 3월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 시장은 전임 시장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시민사회단체는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



윤만식 문화학 박사,
사)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상임고문

문화와 소통

‘문화’, 문화는 무엇일까? 문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떠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과 같은 느낌이 든다. 사전적으로 문화의 의미를 살펴해보자면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문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담론적 개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어려운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나보다.

올해 초 타지에서 온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광주는 문화도시라고 하던데 기대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광주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시위를 하기도 하고 시민문화가 잘 발달한 것 같다고 하였다. 개인주의가 더 강해져 가는 현대에 누군가의 일, 지역의 일을 개인의 일로 여기고 함께 개선하기에 앞장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그러한 마음과 정신들이 모여 지금의 광주를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5·18이 있었고, 세월호 사건 때는 촛불 시위와 시내에 노란 리본이 넘쳐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데 시민의식 외에 눈으로 보여지는 광주의 모습은 어떨까? 문화도시라고 광주의 문화를 소개할 때 어디를 데려가야 할지, 어떤 문화를 보여줘야 할지 떠오를 때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렇다고 문화도시라는 이름을 두고 시의 아무런 노력이 없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력이, 광주시는 시민들과 문화 소통은 잘 되고 있는가? 소통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1. 막히지 아니하고 서로 통(通)함. 2. 뜻이 서로 통(通)함. 3. 속이 트임. 도리(道理)와 조리(條理)에 밝음.’라고 한다.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일방적인 전달만으로는 소통이라고 하지 않는다. 노력들이 시민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느껴졌을 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출입문을 보고 웃음이 지어졌던 적이 있다. 출입문에 언제부턴가 생긴 웃는 스마일 표정과 함께 Thank you!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출근길이나 등교길, 혹은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무심결에 발견한 웃는 표정에 함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너

무 거창하고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를 더 많이 만들면 광주시민들이 일상에서 광주를 더 문화도시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를 살지 않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새로운 광주의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감흥을 줄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들이 곳곳이 베어 하루를 다독여줄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

최근에 생통강좌 답사로 광주호생태공원 주변을 다녀오면서 '광주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새로이 느꼈다. 그런데 답사에 함께했던 다른 수강생 분들도 같은 말을 하며 정류장에 광주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고 노선을 확인하곤 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나처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번 답사가 큰 의미로 느껴졌다.

이런 광주의 구석구석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면 어떨까? ACC 행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발길이 닿기가 멀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발길이 닿아야만 알 수 있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그만큼 마음에서 거리가 있다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문화에 관심 없는 사람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마케팅에 힘써주면 어떨까? 요즘에는 SNS를 보면 광주에서 가볼만한 곳이나 행사를 찾아보기는 쉬운 일이다. 그런데 마케팅비용을 크게 지불하지 않는 이상 소규모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소상공인 회계비용 지원해주는 제도처럼 마케팅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광주시에서도 행사와 광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숨은 맛집을 찾아가듯 숨겨진 광주의 문화가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수있게 말이다.



무등산에 등산을 하러갔다가 광주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단체를 만난 적이 있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향기는? 광주에 관해 물어보는 다양한 설문내용들이 많았다. 답을 하는데 정말 꼼꼼이 생각을 해보며 답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생각이 없기도 했다. 하얀 도화지 안에 광주시와 시민들의 더 많은 소통으로 일상속에서 광주를 더 많이 만나 어느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광주라는 곳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다양한 유채색으로 채울 수 있도록, 잔잔하게 떠올라 마음 깊이 남아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닌 잔잔하게 스며드는 광주의 문화가 되면 좋겠다. ♪



이하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활동가

문화공감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사라진 것은 무엇이고
사라질 것은 무엇인가?
남을 것은 무엇이고
사라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린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볼 수 없을 것인가? ♪
김옥열_ 사진작가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열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흥(興)이 돋는 장흥 문학길 따라’ 개최



‘흥(興)이 돋는 장흥 문학길 따라’를 주제로 열 번째 지역문화 교류마당 행사가, 지난 9월 24일(토) 재단 임회원 및 시민 2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에서 출발하여 회령진성, 선학동마을 ‘이청준 생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양사, 백수인 시인의 집 등을 경유하는 코스로 진행된 이번 지역문화교류마당은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이사장의 동행 해설 및 백수인 시인의 집 방문 프로그램이 더해져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지역문화교류마당은 우리 재단이 임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매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호남 지식인들의 생활사 만나기’ 강좌와 답사 성황리에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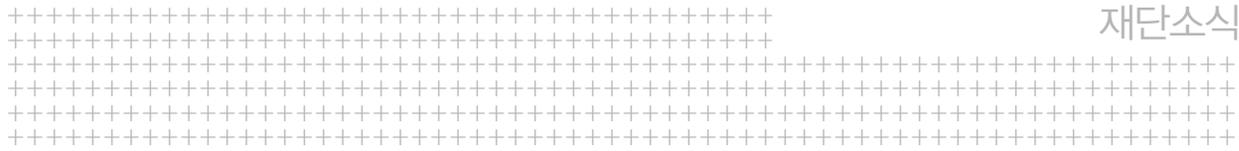
‘호남 지식인들의 생활사 만나기’라는 주제로 9월 20일(화)~10월 15일(토) 열린 호남학 강좌와 답사가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총 8회 강좌와 1회 답사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호남지식인들의 일상적 삶을 보여주는 그림, 여행기, 일기, 편지 등을 통해 외부의 역경을 대처해나가는 지혜를 배우고 호남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획했다. 10월 15일(토) 강진 답사를 끝으로 종료된 이번 호남학 강좌 프로그램은 열정적인 강사들의 강연 및 참석자의 뜨거운 열기로 큰 호평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다양한 주제의 시민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민 주체의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2022 생통포럼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미디어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집담회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미디어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0월 26일(수) 오후 3시에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에서 시민사회 집담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아닌 집담회로 호칭이 되며 더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집담회는 시작이 되었다 미디어월은 지난 2017년 옛 전남도청 후면 경찰국 외벽에 설치된 가로 75.2m, 세로 16m 규모의 미디어아트 전용 전광판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를 앞두고 현재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열린 집담회에서는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사업 계획에 의하면 문화전당 미디어월은 철거해야하지만 꼭 철거만이 능사냐는 여론도 상존하여 이에 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미디어월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하면 해법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도협(재단 간사단체)주최,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 개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재단 간사단체)와 대구 (가칭)영호남교류



협의회 공동 주최로 '달빛 시민문화단체 소통과 교류 모임'이 지난 10월 27일(목) 양 지역의 시민문화단체와 예술인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갖은 대구 문화 바로 알기 투어는 근대화역사관, 달성공원과 읍성 등을 탐방하는 순으로 진행되었고, 대구의 명물 골목인 반고개에서 환영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투어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열 한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개최



열 한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미디어아트로 통하는 Fun 시티 광주' 프로그램이 지난 10월 29일(토) 오후 4시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미디어아트 작품을 해설과 함께 둘러보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출발과 오늘, 그리고 미래를 시민들과 기억하고 소통하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탐방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을 거쳐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1, 2권역을 둘러보고, 미디어아트 창제작 현장인 '뉴폼스' 방문에 이어 옛 전남도청 미디어아트 파사드와 '빛의 분수대'를 작가와 함께 감상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지역문화교류마당은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는 만남을 통해서, 문화도시 광주의 기반 조성 및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우리 재단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시민문화 프로그램이다.

2022 문도협 생통강좌 '길 위에서 만나는 꾸밈스러운 광주 문화와 역사'



11월 1일(화)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길 위에서 만나는 꾸밈스러운 광주 문화와 역사' 라는 주제로 문도협 생통강좌가 열렸다 이 강좌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가 주최하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 광주장애인문화협회(회장 정진삼),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공동대표 엄수경)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의향의 역사 및 숨겨져 있는 지역문화의 가치와 숨결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재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4강좌와 1답사로 이루어진다

제15회 학술심포지엄 열려



'여행기로 만나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 주제로 제15회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6일(수)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구한말 부산상법회의소(오늘날 상공

재단소식

회의소)소속의 서기였던 일본인 마사다 교조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행기로 만나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고찰해보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올해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호남여행기 단행본'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심포지움 사회는 남도역사문화원 노성태 원장이 맡았으며, 정성일 광주 여대 교수가 '여행기로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노영기 조선대 교수가 '구한말 일본인의 시선에 반영된 전라도' 조광철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여행기사 속의 면직물'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서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이향준 전남대 교수, 임선화 광주교육대 교수가 각 주제별로 지정토론자 참여했다.

• 조직

재단 2022년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2년 3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 27일(월)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양균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는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추진 과정의 미디어월 존치 논란 등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직 개방형직위 재 지정 등 지역 문화 현안 관련에서도 지역 문화계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한편, 두번째 개최한 2022 세지광 사업이 큰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재단 인적 자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호남여행기』 단행본 발간 2차 자문위원회 열려

호남여행기 단행본 발간을 위한 2차 자문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수) 17시에 우리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11월 30일 목표로 단행본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일정에 차



질이 없도록 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소임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호남학 학술심포지움은 11월 16일(수) 오후 3시에 5·18민중화 운동 기록관에서 개최기로 하고, 단행본 발간 의미를 살려서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를 선정하되 후속조치는 연구진과 사무처에 위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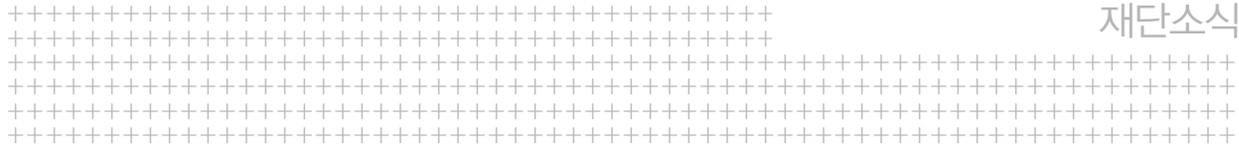
문화담론지 『창』 겨울호(통권 59호) 준비 편집위원회 개최



문화담론지 『창』 겨울호(통권 59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김옥열 편집위원장, 김향득, 김정희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2일(목) 14시,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 겨울호 특집기획의 주제 및 2023년 『창』 기획방향과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나누었다. 우리 재단이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문화담론지 『창』은 문화정책 현안과 문화 담론 외에도 문화 청년그룹 소개, 신화연재, 포토에세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뿐만 아니라 행정, 유관기관, 시민문화예술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 개최

제2차 정기이사회 전체 및 임원 연석회의가 지난 11월 30일(수) 오후 6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들의 제안 사항을 반영한 2023년 사업, 예산(안)을 승인하되, 1~2월 각 의결기구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정



기사회에서 최종 승인으로 하였다. 또한 재단 조직 준비는 개편 방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후에 향후 임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후에 추진기로 하였다. 한편, 오는 12월 7일 개최되는 재단 송년의 밤은 형식과 격식보다는 임직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기로 하였다.

•연대

AC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소통 포럼 열려



AC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소통 포럼이 8월 20일(화) 오후 2~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통합 문화전당 설립 이후 전당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전당~지역 시민문화계와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광주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열려

이태원 참사 관련 광주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이 우리 재단을 포함하여 지역의 11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5·18민주광장에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번 참사가 정부와 공권력의 부실한 대응과 기능마비가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사건 축소, 꼬리자르기



모자라 시민사회 사찰을 통해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려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철저한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 주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일방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우리 단체가 공동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전일방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민간 사업자가 옛 전남·일신 방직 부지에 복합 쇼핑몰 및 주상 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과 관련해 공공성을 확보해 제대로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는 광주광역시 사전 협상 전제 조건의 핵심인 공장 건축물 보존과 도시계획 변경 기본 방향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협상 전제 조건에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산업 건축자산으로서 가치’ 실현을 위해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 원칙 준수, ‘전남·일신방직 공장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가치 기준 평가’ 결과를 수용해 건축자산으로서 적극 보존·활용하도록 제시했지만, 사실상 무시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렬 (주)다큐디자인 대표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견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스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무총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

김성환 서구청 문화정책 전문위원

김윤아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협의회 정책팀장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이상필 동신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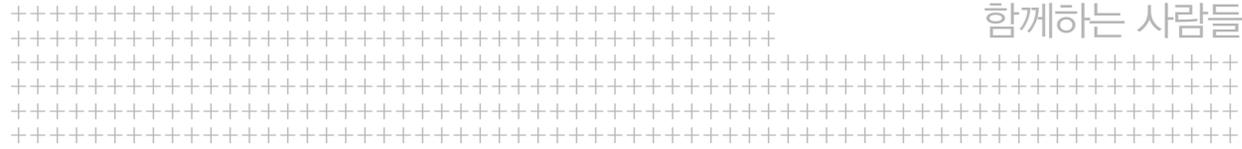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이하린 청년활동가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다큐디자인 대표

〈편집위원〉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편집 후기

무언가 마무리할 시기가 되면 괜히 마음만 바빠집니다. 해놓은 건 없는데 시간은 훌쩍 가버리고, 멀어져가는 세월의 뒤통수만 쳐다보며 한숨 짓곤 하는 게 늘 반복됩니다.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보내야 또 새로운 게 다가오기도 하니.

『창』 2022년 겨울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한해 지역문화계 현안들을 돌아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나름 아이디어를 모았습시다만 아쉬운 마음도 가득합니다. 더 다양하고 깊이있는 시각으로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싶었는데 지면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핫피플 인터뷰’에 모신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이야기가 많이 다가옵니다. 지역문화계 현안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내심 안심과 기대도 생기는군요. ‘문화진단’의 옥고들도 읽어볼만 합니다.

좋은 글들을 보내주신 여러 필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편집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자여러분, 가는 해 잘 보내시고 새해에 더 건강하십시오. 『창』도 더 신선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덧 17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금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et.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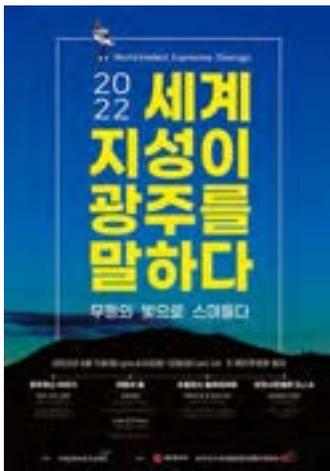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눈 내린 광주와 무등산

밤 새 내리던 눈이 광주와 무등산을 덮어 멋진 설경을 이뤘다. 눈이 수북히 쌓여 머리가 하얗게 된 무등산이 광주를 살피고 있는 듯 하다. 카메라 앵글로 담아 본 광주광역시와 무등산, 눈꽃 세상을 감상해보자.

“2022 재단 이모저모”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개관

국내최초 하이브리드 버추얼 스튜디오, 메타버스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등 첨단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 구성

<GCC 입주기업 수시모집>

대상 실감콘텐츠 기획 제작 및 서비스 관련 사업자
실감콘텐츠 개발, 활용 제품 제조 사업자

문의 시설관리팀 062-610-2942